

[보도자료] 쿠팡, 경상북도와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 발굴 위한 MOU 체결

2022. 11. 8.



- 지역 상생 특화 이커머스로서 경북 농·특산물 발굴과 판로 확대에 나서
- 경북 지역 농·특산물 판매확대 위해 마케팅과 기획 할인행사 협력

2022. 11. 8. 서울 - 쿠팡이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소재 농·특산물 발굴과 판로 확대에 나선다.

8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쿠팡 신사업 부문 박대준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경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마케팅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경북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쿠팡은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힘써온 이커머스 기업으로서, 그간 지역 농어업인들과 상생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쿠팡만의 특화된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도가 핵심인 농·특산물을 전국으로 빠르게 판매하며, 온라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이날 MOU 체결을 통해 경북 지역 농·특산물에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함께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기획 할인행사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우수 농·특산물 발굴과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북과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 이후 행사장에선 '쿠팡 로켓배송 입점 품평회'가 열렸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경북 내 재배 생산된 농·특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 20여곳 참여했으며, 쿠팡 물류센터로의 공급 및 로켓배송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와 맞춤형 판매 방안 상담 등이 이뤄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농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라며 "경북 김천 쿠팡 첨단물류센터 건립 협약에 이어 이번 온라인 농특산물 판로 확대까지 쿠팡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을 첨단화하고, 나아가 경북이 K-농식품, K-푸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협력해 '경북세일페스타'를 열고 경북 지역 중소기업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사먹자, 사이소 먹거리 자랑'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경북과 협약을 통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우수한 농·특산물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지역과 협력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